

동아시아 주택 비교 1.

# 대문

글/한결원 ATA(아시아건축문화연구원, Asian Tradition in Architecture)



하회마을, 충효당의 솟을대문

### 현관, 아파트의 극단적인 실용성

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문을 두 번 거친다. 아파트 동의 출입문과 집집마다의 현관문. 동아시아의 전통주택에 들어갈 때 거치던 대문과 중문에 해당하는 문들이다. 아파트에는 현관이라는 공간이 있다. 한 평도 채 안 된다. 신을 벗고 집안에 들어가는 한국과 일본의 주택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다. 현관문은 밖으로 연다. 신들이 한쪽으로 쓸리는 것을 피하려다보니 문을 안으로 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손님이라도 오면 현관은 여전히 비좁다.

어두컴컴한 아파트의 현관에서 전통주택의 대문간이 가졌던 상징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거기에는 신을 벗어 두고 실내의 열을 유지하는 실용적 기능만이 있을 뿐이다. 여전히 대문은 집과 세상을 나누어주고 이어주는 곳인데, 우리가 현관과 현관문을 너무 소홀히 생각해온 것은 아닐까? 왜 우리는 옆집과 똑같은 대문을 가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까? 우리의 문화가 지녀온 문간의 의미를 제한된 공간에서나마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 문, 그 상징과 장식 그리고 위치

문은 안팎을 나누고 이어주는 전이의 공간이다. 그것은 또한 집의 얼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상류주택에서 출입문은 대개 대문과 중문으로 구성된다. 중문은 본격적으로 사적인 주거공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집 안팎을 드나드는 것은 대문과 중문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집안으로 들어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요즘 현관에 걸린 큰 거울에 모습을 비추고 자신을 확인하지만 이전에는 대문 자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신분이었다. 격식을 갖춘 한옥에서는 바깥행랑채에 대문이 솟을대문으로 설치되고 안행랑채에 중문이 설치된다. 솟을대문이란 행랑채 지붕보다 한 층 높은 지붕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관료직이 정(正)과 종(從) 각 9품계(品階)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종2품 이상은 초

## 大門



중국 서세촌(西邊村) 동원(東園)의 대문

헌(舌軒)이라 불리는 외바퀴 수레를 타고 다녔는데, 초헌을 탄 채로 대문을 드나들려면 대문의 지붕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겨난 솟을대문이 양반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와서 신분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솟을대문의 상징성도 그렇게 되어 중인의 집에도 솟을대문을 설치하였다.

중국주택에서도 대문은 격식과 장식을 통해 신분을 상징한다. 동아시아삼국 중 대문을 가장 화려하게 꾸미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사합원에서는 특히 중문인 수화문(垂花門)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두 개의 수화주(垂花柱)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수화문은 주택의 중심축 상에 자리해 실질적인 입구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대문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요소이었으므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다양한 색채와 문양으로 꾸며진다. 한편, 상하이 등지에 분포하는 도시 연립주택인 이롱(里弄)주택에서는 문이 곧 집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롱주택을 흔히 석고문(石庫門)이라고 부른다. 석고문은 본래 석재 문틀에 검은 칠을 한 두꺼운 목재 문짝을 설치한 대문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주택의 대문은 한국과 중국의 그것에 비해 매우 간소하다. 실용적인 측면이 돋보인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중세부터 마치야라는 2층의 도시주택을 발전시켜 왔으며 마치야는 전면의 한 칸을 대문간으로 구성한다. 격자형의 창살이 있는 문짝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일본의 주택에서는, 대문의 화려함 대신에, 집 내부에 도쿄노마(床の間)라는 일종의 벽감을 설치하고 족자와 같은 상징적인 장식품으로 꾸민다. 마치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날 아파트의 현관과 같은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일본주택에는 일찍이 현관이라는 입구공간이 발전했던 것이다.

### 대문의 방향, 그 의미와 소망

동아시아의 전통주택에서는 대문을 내는 방향 또한 중시되었다. 풍수상으로 길한 방향을 찾아 문을 내었던 것이다. 한옥에서는 대문이나 중문을 채(건물)의 정면에 내기도 하고 측면에 두기도 한다. 일정한 방



일본 교토, 마치야의 대문

위를 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지세 등을 고려하여 대문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대문을 통하여 밖을 내다보면 잘 생긴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로써 멀리 있는 자연과 집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

중국 베이징 등지에 분포하는 사합원에서는 집의 동남쪽에 대문을 둔다. 베이징이라는 도시의 공간조직은 대부분의 주택이 남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남향집에서 동남쪽은 집의 정면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해당한다. 축과 대칭을 중시하는 중국의 건축에서 대문을 축상에서 벗어난 곳에 두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동남에 문을 두면 길하다 하여 대문의 방위를 일정하게 고집하는 것이다. 베이징에서는 주택 진입로가 대지의 북쪽에 있을 경우에도 대지의 동측에 별도의 진입골목을 조성하여 동남이라는 대문의 방위를 지킨다. 중문인 수화문은 안채 격인 정방(正房)의 정면에 설치한다.

### 문간, 꺾어 드나드는 공간

한국과 중국의 대문간에서는 동선의 방향이 꺾인다. 한국에서는 내외벽을 두고 중국에서는 영벽(影壁)을 둔다. 사합원에서 대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영벽(影壁)으로 차단된다. 영벽은 대문 바로 안쪽에 설치되어,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 사람들은 잡귀가, 사람과 달리, 꺾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똑바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들이고 귀신을 막으려고 진입동선을 꺾었다는 이야기다. 대문(오모테몽, 表門)과 중문으로 구성되는 격식을 갖춘 일본 주택에서도 역시 진입방향이 90도로 꺾이는 것이 보통이다.

세 나라 모두 문간을 통해 동선과 시선의 차단과 굴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집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문간에서 집을 어느 정도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의 주거에서도 중요하다. 현관문을 열면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래된 지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❶